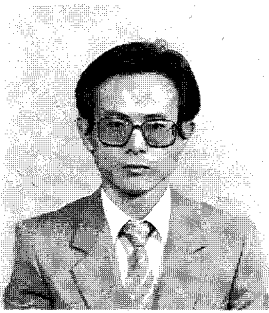


1991년의 좌표와 산업구조고도화의 과제

이성섭 <숭실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지난 1986년 이래로 1989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가 경험한 현상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현상들과 판이하게 달라서 다분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와 비교해서 볼때 내수규모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경제현상이다. 확장된 국내수요가 소비수요로 나타나면서 과소비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아파트 및 주택의 소유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면서 과열에까지 이른 건설경기를 낳게 되었다.

이런 내수확대현상은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 패턴으로 나타났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라도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는 국가들에서 예외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 소득이 언젠가는 국민에게 분배되게 마련이고 이렇게 부가된 소득은 내수시장을 형성하는 기반을 조성하게 마련이다.

다만 이런 소득이전과정이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급격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이래로 진행된 심각한 노사분규 그리고 과열된 부동산투기열풍의 과정은 소득이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노사분규를 계기로 급격히 인상된 임금소득 그리고

부동산 투기열풍속에서 급속히 팽창한 부동산소유자의 자산소득이 결국 내수팽창의 기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급격한 소득의 증가가 뒤에 과소비라고 비난받게 된 소비열풍과 아파트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대만에서도 이미 겪은 바 있고 일본에서는 1965년 이래로 5년간 지속된 「이자나기 경기」 중에 「3C」에 대한 수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가정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Car), 칼라 TV, 그리고 실내쿨러(Cooler)로 대표되는 가정용전자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경제현상은 이런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제조업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경제는 크나큰 구조조정 of 과제를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1987-89년간을 통해서 노동임금은 기본금으로만 계산해서 연평균 18.8%의 상승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대만은 연평균 10.6%, 일본은 3.4%의 상승율을 기록하였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이 그만큼 뒤쳐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중에 노동생산성상승율은 연평균 13.6%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기업이 절대적으로 원가상승의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채산성이 그만큼 악화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같은 기간중에 이루어진 급격한 「원화의 평가절상」은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1985년 9월부터 1988년말에 이르기까지 31.3%에 달하는 「원

화의 평가절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동남아에 진출한 일본은 이 지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원가를 절감하게 되어 가격경쟁력에서 우리제품을 앞지르게 되었다. 결국 최근 무역업계의 “수출할 물건이 없다”는 한탄의 소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도 일부 발빠른 기업들은 동남아나 남미·괌등으로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미 해외진출을 하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 of 과제와 더불어 나타난 경제현상은 이 시점에서 우리경제가 산업구조고도화와 기술개발 그리고 신제품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높아진 임금과 소득수준에서 업계와 우리경제가 각박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보다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개발해내는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술은 일본이나 미국의 제품을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이렇게 남의 힘으로 개발된 제품을 값싸고 근면한 노동력으로 만들어서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동남아로 진출해서 일본의 기술을 우리보다 더 값싼 동남아의 노동력과 결합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독자적인 기술없이는 경쟁이 안되는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1991은 이런 절박한 경제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긴박한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